
2019년 12월 및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

2020. 1.

I. 조사개요

1. 조사명

- 「2019년 12월 및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

2. 조사 목적

- 월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분석을 통해 부산지역 경제 동향 파악
- 향후 경기를 예측하기 위한 참고자료

3. 조사 대상

- 12월 및 연간 부산지역 신설법인

4. 조사 방법

- 현장 방문 조사(법원 등기과)

5. 조사 내용

- 부산지역의 신설법인 창업 현황
- 자본금 규모, 업종에 따른 분류

6.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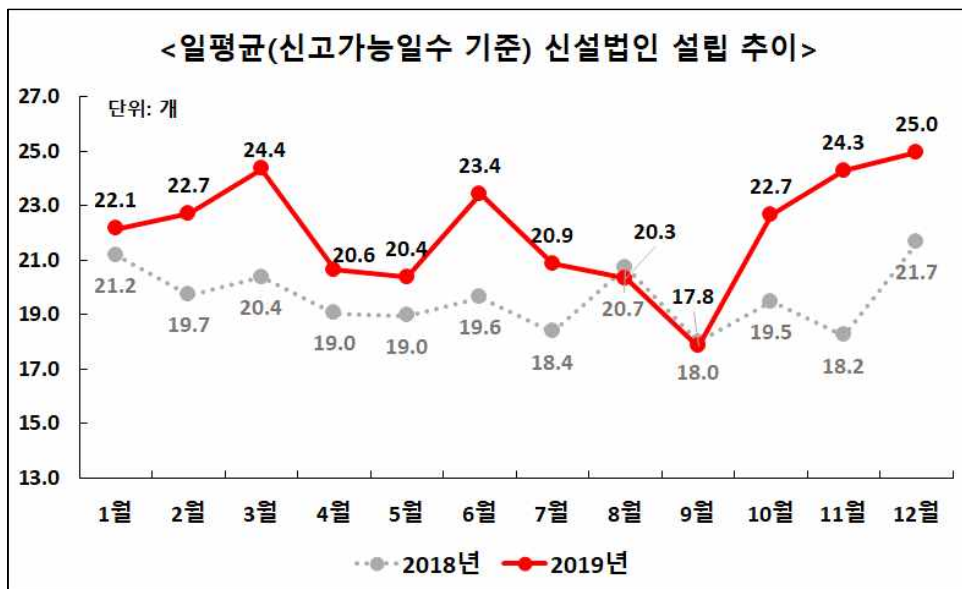
-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I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 현황

1. 2019년 신설법인 현황

○ 2019년 연간 부산지역 신설법인 5,463개체 설립 전년 4,829개체 대비 13.1% 증가, 역대 조사 이래 최고치 기록

- 2019년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사상 처음 5천개를 돌파하여 역대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업종별로는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도 증가하였음, 특히 2019년 들어 1월 487개체, 11월 510개체, 12월 524개체로 월별 역대 최고치를 연이어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신고가능일수 하루당 설립 현황 역시 2019년 일평균 22.0개체가 설립되어 2018년 19.6개체, 2017년 19.8개체를 뛰어넘어 20개체의 벽을 넘어섰음, 월별로도 추석연휴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법인 설립이 다소 주춤했던 9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20개체 이상을 기록해 월별 신설법인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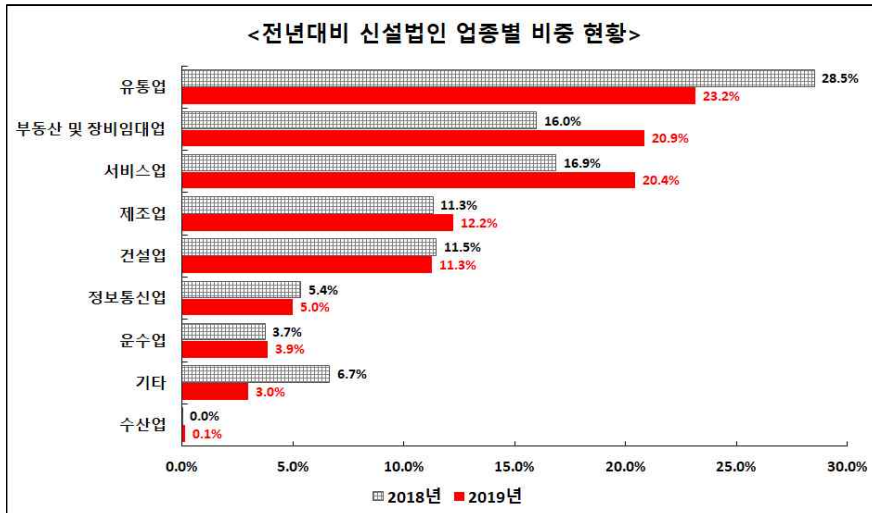
2. 2019년 업종별 신설법인 현황

○ 업종별로는 유통업이 1,266개체(23.2%)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음

- 이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1,140개체(20.9%), 서비스업 1,116개체(20.4%), 제조업 669개체(12.2%), 건설업 616개체(11.3%), 정보통신업 274개체(5.0%), 운수업 212개

체(3.9%), 수산업 7개체(0.1%), 기타 163개체(3.0%) 순으로 설립

- 전년대비 업종별 비중 변화를 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4.9%p), 서비스업(3.6%p), 제조업(0.9%p), 운수업(0.1%p)에서 증가했으며, 유통업(△5.3%p), 정보통신업(△0.3%p), 건설업(△0.2%p), 기타(△3.7%p) 등에서는 감소



3. 2019년 주요 업종별 세부 현황

○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은 전년 772개체 대비 368개체(47.7%)증가한 1,140개체가 설립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임

-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은 부동산 규제의 강화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 늘면서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특히 대출 규제를 피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인원이 늘었고, 은행의 저금리,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국내증시 불확실성 증가 등의 원인으로 각종 투자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신설법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은 전년동기 547개체 대비 122개체(22.3%) 증가한 669개체 설립

- 제조업은 전방산업 침체로 인한 지역 주력 제조업 부진의 영향으로 2018년 2월 전년동월대비 감소를 기록한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 5월 증가로 반전된 이후 매월 큰 폭 증가하여 전년대비 22.3% 증가를 기록함
- 세부업종별로는 기계·조립금속·철강·전자전기업이 전체의 62.3%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화학·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이 10.5%, 섬유·의류·신발·가죽·가방 제조업이 7.0%, 음식료품 제조업 6.4%, 기타제조업 13.8% 순으로 나타남, 특히 지

역 주력 제조업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과 조선기자재 제조업의 경우 전년대비 각각 112.0%, 37.1%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법인 설립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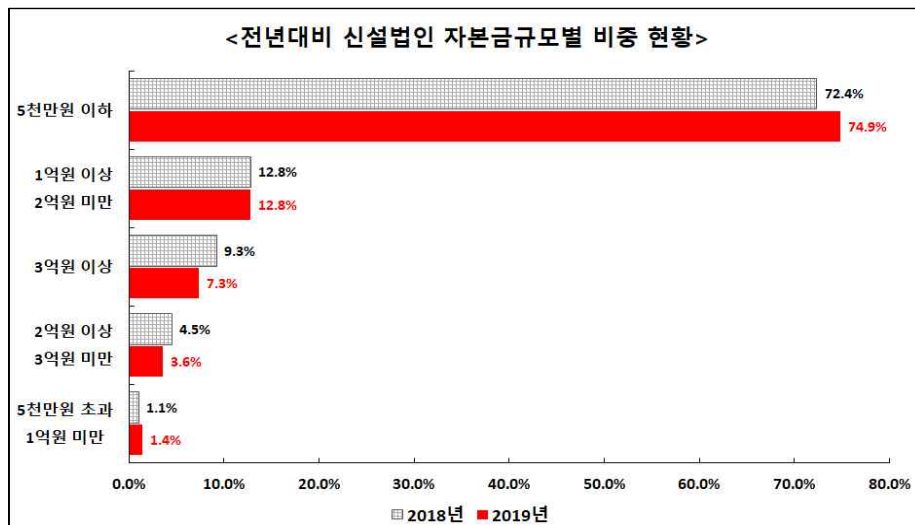
○ 유통업은 전년동기 1,377개체 대비 111개체(△8.1%) 감소한 1,266개체 설립

- 유통업의 주요 취급 품목은 농수산물, 의류, 화장품 등의 소비재 인 것으로 나타났음, 유통업 간의 경쟁 심화, 소비심리 둔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타업종 대비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지역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
- 특히 유통업은 모바일, 인터넷 등으로의 유통 채널 다변화로 인해 온라인 기반 유통업의 창업이 크게 늘었고, 39세 이하 청년층에서 법인 설립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4. 2019년 자본금 규모별 현황

○ 자본금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가 4,090개체(7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이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00개체(12.8%), 3억원 이상 401개체(7.3%),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94개체(3.6%), 5천만원 초과 ~ 1억원 미만 78개체(1.4%)로 집계
- 자본금 5천만원 이하 소자본 신설법인은 전년대비 2.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자본 신설법인은 기술 기반 업종과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업 창업의 증가로 인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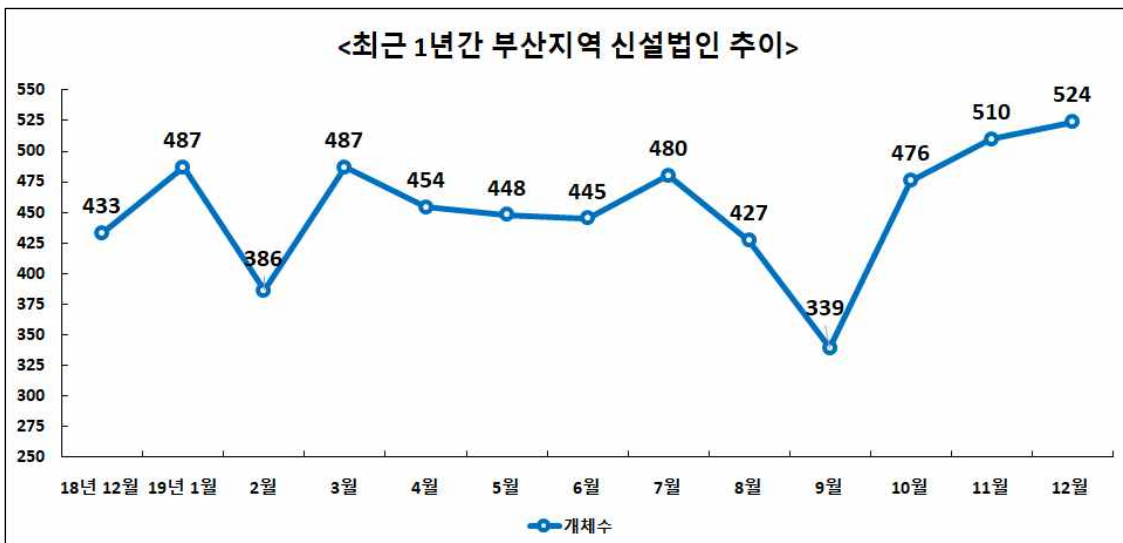


II 2019년 12월중 신설법인 현황

1. 신설법인 현황

○ 2019년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수 : 524개체

- 전년동월 433개체 대비 21.0% 증가, 전월대비 2.7% 증가
-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은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서 증가해 전년동월대비 21.0% 큰 폭 증가, 지난달 510개체를 넘어서 월별 역대 최고치 기록



2.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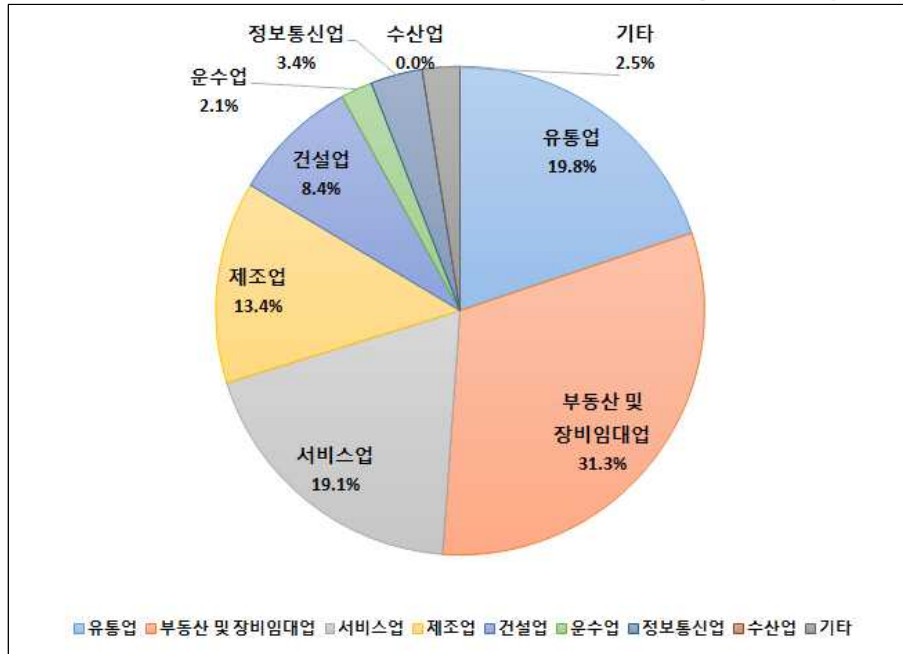
○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524개체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이 164개체로 전체의 31.3%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 유통업 104개체(19.8%), 서비스업 100개체(19.1%), 제조업 70개체(13.4%), 건설업 44개체(8.4%), 정보통신업 18개체(3.4%), 운수업 11개체(2.1%), 기타 13개체(2.5%) 등으로 집계

○ 12월중 부산지역 신설법인 업종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이 전년동월대비 97.6%로 가장 크게 증가

- 이어 서비스업(51.5%), 제조업(27.3%), 건설업(7.3%)에서 증가했으며, 정보통신업(△45.5%), 운수업(△35.3%), 유통업(△5.5%), 기타(△53.6%)에서는 감소

<2019년 12월 부산지역 신설법인 업종별 비중>



3. 주요 업종별 세부 현황

-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은 전년동월의 83개체 대비 81개체(97.6%) 증가한 164개체
 -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은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환으로 부동산 임대업에서 가장 크게 늘었으며, 부동산 중개,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 전 업종에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2018년 10월 이후 1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비스업」은 전년동월의 66개체 대비 34개체(51.5%) 증가한 100개체
 - 서비스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40개체로 가장 많이 설립되었으며,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22개체, 숙박음식점업 11개체, 금융 및 보험업 7개체, 복지서비스 7개체, 교육서비스 6개체, 기타서비스 5개체, 예술·스포츠 및 여가 2개체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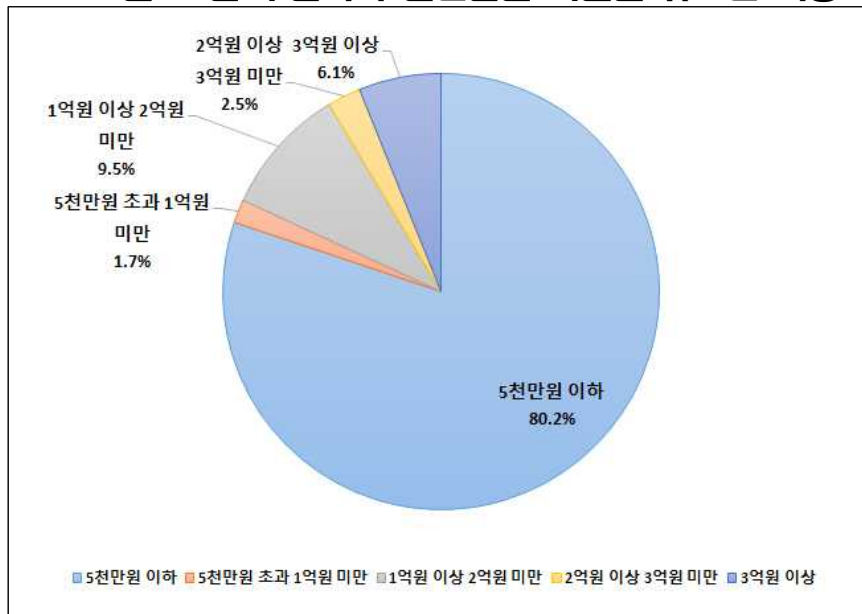
- 「제조업」은 전년동월의 55개체 대비 15개체(27.3%) 증가한 70개체
 - 제조업은 기계·조립금속·철강·전자전기업이 50개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음식료품 8개체, 섬유·의류·신발·가죽·가방 3개체, 화학·고무·플라스틱 3개체, 기타제조업 6개체 순으로 나타남

4. 자본금 규모별 현황

○ 자본금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 원 이하가 420개체(80.2%)로 가장 많음

- 이어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 50개체(9.5%), 3억 원 이상 32개체(6.1%), 2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13개체(2.5%),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미만 9개체(1.7%) 등으로 집계

〈2019년 12월 부산지역 신설법인 자본금 규모별 비중〉



○ 자본금 5천만 원 이하 소규모 신설법인의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이 141개체(33.6%)로 가장 많았음

- 이어 유통업 88개체(21.0%), 서비스업 83개체(19.8%), 제조업 52개체(12.4%), 건설업 28개체(6.7%), 정보통신업 16개체(3.8%), 운수업 2개체(0.5%), 기타 10개체(2.4%) 등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189개체(36.1%)가 설립되어 가장 많았으며, 이어 39세 이하 청년층 149개체(28.4%), 50대 118개체(22.5%), 60세 이상 68개체(13.0%) 등으로 나타났음

- 법인 설립이 가장 활발한 40대의 업종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32.9%)과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37.8%), 건설업(47.7%) 등의 업종에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고용시장의 불안정, 조기 은퇴 등의 영향으로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

<2019년 12월 부산지역 신설법인 연령별 현황>

(단위: 개체,%)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제조업	3	16	19	23	14	14
건설업	2	5	7	21	10	6
유통업	2	36	38	34	19	13
운수업	1	2	3	2	4	2
정보통신업	0	3	3	9	5	1
부동산 및 장비임대업	6	35	41	62	42	19
서비스업	10	25	35	32	21	12
수산업 및 기타	0	3	3	6	3	1
합 계	24	125	149(28.4)	189(36.1)	118(22.5)	68(13.0)

2019년 12월중 신설법인 현황

(단위 : 개체,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륜			
		11월	12월	누계 (12월)	11월	12월 (당월)	누계 (12월)	비중	전월비	전 년 동월비	전 년 동기비	
합	계	401	433	4,829	510	524	5,463	-	2.7	21.0	13.1	
산업 별	수 산 업	0	0	2	0	0	7	0	250.0	
	제조업	음·식료품	1	2	38	5	8	43	1.5	60.0	300.0	13.2
		섬유·신발·가방·가죽	4	3	46	5	3	47	0.6	△40.0	0	2.2
		화학·고무·플라스틱	2	7	43	10	3	70	0.6	△70.0	△57.1	62.8
		기계·금속·철강·전자·전기	23	32	364	36	50	417	9.5	38.9	56.3	14.6
		(자동차부품)	3	3	25	5	6	53	1.1	20.0	100.0	112.0
		기타 제조업	2	11	56	8	6	92	1.1	△25.0	△45.5	64.3
	소 계	32	55	547	64	70	669	13.4	9.4	27.3	22.3	
	건설업	34	41	554	51	44	616	8.4	△13.7	7.3	11.2	
	유통업	115	110	1,377	122	104	1,266	19.8	△14.8	△5.5	△8.1	
	운수업	27	17	181	20	11	212	2.1	△45.0	△35.3	17.1	
	정보통신업	17	33	259	23	18	274	3.4	△21.7	△45.5	5.8	
	부동산 및 장비 임대업	87	83	772	124	164	1,140	31.3	32.3	97.6	47.7	
기타 서비스업	64	66	815	91	100	1,116	19.1	9.9	51.5	37.1		
기 타	25	28	322	15	13	163	2.5	△13.3	△53.6	△49.4		
자본금규모별	5천만원 이하	299	310	3,494	395	420	4,090	80.2	6.3	35.5	17.1	
	5천만원 초과~1억원 미만	4	5	51	5	9	78	1.7	80.0	80.0	52.9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1	63	620	62	50	700	9.5	△19.4	△20.6	12.9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17	18	217	12	13	194	2.5	8.3	△27.8	△10.6	
	3억원 이상	40	37	447	36	32	401	6.1	△11.1	△13.5	△10.3	